

News Focus

Students hold 'no-loser' race for ailing friend

A group of sixth-graders in Yongin, Gyeonggi Province have touched the nation by holding a "no-loser" race for an ailing friend.

The four students of Jeil Elementary School secretly organized the race in honor of their friend Kim Ki-gook, who suffers from achondrogenesis, a disorder that affects cartilage and bone development.

The four students said their friend was always finishing last during school races.

They did not, however, let Kim know about their plan in advance. In fact, they began the hurdle race normally, sprinting at the sound of the starter's pistol and leaving their friend behind.

But when the faster boys approached the finish line, they stopped, turned around, and looked back at their friend.

The four stayed in their places until Kim stepped over the last hurdle. Then they all walked hand-in-hand across the finish line.

Teachers and parents applauded, some in tears.

A photo showing Kim wiping away tears has gone viral online.

"The boys wanted to prepare something special for their friend, and asked the teachers to plan this before the sports event," Jeil Elementary School principal Hong Jung-pyo said.

"I was speechless," Kim's father said. "I'm so grateful that they came up with such an amazing way to help my son finish the race."

Race 경주 / in honor of ...를 기념하며 / achondrogenesis 연골무형성증 / disorder 장애 / cartilage 연골 / in advance 미리 / pistol 총 / applaud 갈채를 보내다 / tear 눈물 / viral 바이러스의 / speechless 말이 없는 / grateful 감사한

친구를 돕기 위해 '패배자 없는' 경주를 하는 학생

경기도 용인의 6학년 학생들이 친구를 돕기 위해 "패배자 없는" 경주를 열어 전국을 감동시켰다.

제일초등학교의 4명의 학생들은 연골이 더 성장하지 않는 병인 연골무형성증을 앓고 있는 친구 김기국을 위한 경기를 비밀리에 열었다.

4명의 학생들은 그들의 친구가 항상 학교 경주에서 마지막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김기국 학생에게 그들의 계획을 미리 알리고 싶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친구를 뒤에 남겨두고 시작 총소리와 함께 달려나갔으며 허들 경기를 평범하게 시작하였다.

하지만 빠른 학생들이 결승선에 도달했을 때 멈추었으며 뒤를 돌아 그들의 친구를 바라보았다.

4명의 학생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김기국 학생이 마지막 허들을 넘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들은 모두 손을 잡고 결승선에 걸어들어왔다.

교사들과 부모들은 갈채를 보냈으며 몇몇은 눈물을 보였다.

김기국 학생이 눈물을 닦는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 학생들은 그들의 친구를 위해 무언가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싶어했으며 교사들에게 운동회 전에 이를 계획하는 것에 대해 물었다," 라고 제일초등학교 홍정표 교장이 말했다.

김기국 학생의 아버지는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 "내 아들이 경기를 끝낼 수 있도록 돕는 이런 멋진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Photoshopped photos 'must' for job seekers, survey reveals

Eight out of 10 Korean job seekers consider their photos to be a critical part of their resumes, a survey shows.

Eighty-four percent of the 482 respondents said resume photos were key in the job application process. Among that subgroup, 90 percent were females and 78 percent males.

Seventy-one percent of respondents said they believed photos determined a person's first impression.

Other reasons were: "looks are competition as well" (33 percent), "different companies look for different desirable looks" (31 percent), and "good photos catch recruiters' attention" (15 percent).

Forty-seven percent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visited photo studios well known for resume photos at least once."

Other respondents said they "ordered Photoshop modification after getting their photos taken," "purchased ties and suits," "did something about their hairdo and makeup" or "kept going to photo studios until they got the right picture."

Almost 70 percent of respondents said their resume photos had been altered with Photoshop.

Job market website Saramin carried out the survey.

Consider 생각하다 / critical 결정적인 / respondent 응답자 / application 지원 / determine 결정짓다 / impression 인상 / competition 경쟁 / desirable 원하는 / attention 주목 / at least 적어도 / modification 수정 / purchase 구매

포토샵 사진들은 구직자들이 “꼭” 필요한 것, 설문조사가 밝히다

10명 중 8명의 한국 구직자들이 그들의 사진이 이력서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한 설문조사가 보여주었다.

482명의 응답자 중 84%가 이력서 사진이 구직과정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성의 90%가 그렇게 대답했으며 78%의 남성이 그렇다고 말했다.

71%의 응답자들은 사진이 사람의 첫 인상을 결정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다른 이유는 “외모도 경쟁력이라서” (33%), “다른 회사들이 그들이 원하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 (31%), 그리고 “좋은 사진들은 고용주들의 주목을 끌 수 있기 때문에” (15%) 였다.

45%의 응답자들은 “이력서 사진을 위해서 적어도 한 번 짚은 잘 알려진 사진관을 방문했다”고 대답했다.

다른 응답자들은 “사진을 찍은 후에 포토샵 수정을 요청했다,” “정장을 구매했다,” “머리와 화장을 따로 받았다,” 또는 “괜찮은 사진이 나올 때까지 사진관을 계속 방문했다,”고 말했다.

거의 70%의 응답자들이 이력서 사진이 포토샵으로 수정이 되었다고 말했다.

구직 웹사이트 사람인이 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Entertainment

Series of scandals may hurt hallyu

The importance of organizing the management system of celebrities was underlined, mentioning Jessica, a member of popular K-pop girl band Girls' Generation, who made headlines for her abrupt dismissal from the band.

The 25-year-old singer and her management company SM Entertainment created media frenzy when the company officially announced Sept. 30 that she was ousted from the band because she put her fashion business ahead of Girls' Generation.

Jessica released a statement on the following day that she was forced to choose between the band and her business.

"Girls' Generation should be cautious and need to take a measure to console their fans because this kind of abrupt change in the lineup could make them turn their fans back to the singers."

celebrity 유명인사 / abrupt 돌연한 / dismissal 해고 / frenzy 광분 / cautious 조심스러운, 신중한 / console 위로하다, 위안을 주다

연속적 스캔들 한류를 위협할 수 있다

최근 돌연 탈퇴함으로써 이슈화된 K-Pop 여성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제시카가 언급되면서 유명인사의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25 세의 이 가수와 그의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9 월 30 일 SM 에서 제시카가 소녀시대보다 자신의 패션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녀시대에서 탈퇴시킨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여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다. 제시카는 그녀가 소녀시대와 그녀의 일 중에 한 개를 선택하도록 강요 받았다고 다음 날 말했다.

"소녀시대는 이러한 돌연한 라인업의 변화가 가수에게 등돌리는 팬들을 만들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하고 그들의 팬을 위로하기 위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

BIFF happy about dress control

Organizers of the 19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IFF) breathed a heavy sigh of relief over how actresses and other female celebrities heeded their call for a bit of modesty in how they dressed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s event.

"We think the change in styles this year brought a positive effect to our film festival, especially with the values that we wanted to uphold by prioritizing the directors, actors and other people that took part in making these movies," Kim Jung-yoon, the BIFF public relations manager said.

The BIFF organizers went to the extreme of enforcing a conservative dress code, shutting down the "Blue Carpet," a venue that young, little-known actresses have used in recent years to attract media attention with skimpy outfits.

breath 숨쉬다 / relief 안도하다 / uphold 유지하다 / prioritize 우선시하다 / conservative 보수적인 / shut down 멈추다 / skimpy 노출이 심한

BIFF 의상제한에 행복해 하다

제 19 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조직위원회는 어떻게 여배우들과 다른 여성 유명인사들에게 올해의 개막식 복장에 약간의 겸손함을 요청하는 것에 안도의 깊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올해 스타일의 변화가 우리의 영화제에, 특히 감독, 배우,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데 한 부분을 담당하는 다른 분들이 본을 보임으로서 유지시키기를 원하는 가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라고 'BIFF 공식 대외협력담당인 김정윤 씨가 말했다.

BIFF 조직위원회는 보수적인 드레스코드를 지나치게 요구하고, 어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여배우가 최근에 미디어의 관심을 끌기위한 노출이 심한 복장을 사용하는 장소인 "블루 카펫"을 멈추려 한다.

Pop diva Mariah Carey here to sing

American pop diva Mariah Carey arrived in Korea – her first visit here in five years.

The veteran singer, 44, will performed at Olympic Park

Carey, whose two children are with her, arrived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earing blue jeans, a black leather coat, long black boots and sunglasses. She happily greeted the welcoming crowd, and signed autographs.

The legendary U.S. singer made her debut in 1990 with the album "Mariah Carey," which had sold more than 15 million copies worldwide. Subsequent top-selling albums include "Emotions" (1991), "Music Box" (1993), "Merry Christmas" (1994), and her first hip-hop-influenced album "Butterfly" (1997).

perform 공연하다 / arrive 도착하다 / wear 입다 / leather 가죽 / greet 반기다 / legendary 전설적인 / influence 영향을 주다

팝의 디바 머라이어 캐리가 노래하러 오다

미국의 팝 디바 머라이어 캐리가 한국에 도착했다 - 5년 만의 그녀의 첫 방문이다.

44세의 베테랑 가수는 올림픽 공원에서 공연한다.

그녀의 두 명의 아이와 함께한 캐리는 인천국제공항에 청바지, 검은깃털코트, 긴 검은 부츠, 선글라스를 끼고 도착했다. 그녀는 기쁘게 환영 인파를 맞이했고, 사인해 주었다.

이 미국의 레전드 가수는 1990년 세계적으로 150만장 이상이 팔린 "머라이어캐리"라는 앨범으로 데뷔했다. 이어진 이모션(1991), 뮤직박스(1993), 메리크리스마스(1994), 그리고 그녀의 첫번째 힙합영향의 앨범 버터플라이(1997)는 베스트셀러 앨범이었다.

Sports / Health

Horseback archery promises action at a gallop

The World Horseback Archery Championship began at the Let's Run Park Seoul in Seoul, re-enacting Korea's traditional horseback martial arts during its three-day run.

For the event's 10th anniversary, about 100 athletes from 17 countries including the U.S., Germany, Turkey, Canada, Japan and Mongolia, competed in various events.

Organizers hope the championship raise public awareness of Korea's traditional horseback riding and martial arts.

"Our traditional horseback archery is totally different from modern equestrian competitions, seen at the just-ended Asian Games," said Kim Young-sup, the chairman of World Horseback Archery Federation.

Kim also stressed that the championship was the first and only one of its kind in the world, and had lots of attractions that could appeal to general audiences.

"We promote our cultural heritage of traditional horseback riding and martial arts, while learning from the excellent skills of foreign riders, who compete in their traditional clothes," Kim said.

Re-enact 재연하다 / martial arts 무술 / athlete 운동선수 / compete 겨루다 / organizer 조직위원 / awareness 인식 / modern 현대 / equestrian 승마 / stress 강조하다 / audience 관중 / heritage 유산

기사 경기, 질주가 보장되다

한국의 전통 기사 무술을 재연하며 3일 동안의 세계기사선수권대회가 서울 렛츠런파크에서 열렸다.

10번째의 행사를 위해 미국, 독일, 터키, 캐나다, 일본 그리고 몽골을 포함한 17개국에서 온 약 100명의 운동선수들이 다양한 경기에서 경쟁하였다.

조직위원들은 이 대회가 한국의 전통 기사와 무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를 바란다.

"우리의 전통적인 기사 무술은 얼마 전에 끝난 아시안 게임에서도 보이듯이 현대의 승마대회와 완전히 다르다,"고 김영섭 세계기사연맹 의장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이 대회가 세계에서 처음이자 하나밖에 없는 대회이며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목할 거리가 많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그들의 전통적인 의상으로 겨루는 외국 선수들의 훌륭한 기술을 배우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기사와 무술의 문화적 유산을 장려한다,"라고 김 의장이 말했다.

Bed and spine health

In archaeological museums, it is very common to see stone beds. Did ancient people use such stiff beds comfortably?

From documentaries about ancient people's lives, aristocratic or royal families ate food or gave orders while lying down on the bed. Back then, it was regarded as a symbol of representing their social status.

In the medieval era, a bed was regarded as a social tool; there were social beds in the living room, and such beds spoke for owner's social power or interior taste.

However, although many people believe that the bed plays a critical role in the interior perspective, much more emphasis is placed on the mattress these days as it is closely related to our health. Much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develop a mattress that is both comfortable and beneficial to our health.

Looking at this relation by types of spine disease, a herniated lumbar disk has some correlation to mattresses, and there are greater correlation between chronic back pain and characteristics of the bed.

As many are aware that good night sleep is very important in relieving stress and tiredness, a good nights sleep may have an impact on the pain level during the day time.

Thus, if the stress on the body is not adequately relieved while sleeping, it may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daily pattern and the level of back pain. A neutral position is recommended while sleeping, as the back should not have pressure on a certain part.

To maintain a neutral position, the pressure on our body should be equally dispersed, and this is related to the firmness of the mattress. Many studies involving patients and biomechanics already support that dispersing pressure is beneficial to our spinal health.

There are some studies indicating that a soft or water mattress is good for your spine, however the water mattress should be avoided for its tactile sense most times.

Archaeological 고고학의 / stiff 딱딱한 / documentary 문서 / aristocratic 귀족의 / order 명령 / status 지위 / medieval 중세의 / perspective 관점 / emphasis 강조 / correlation 연관성 / disperse 분포하다 / biomechanics 생역학 / tactile 촉각의

침대와 척추 건강

고고학 박물관에 가보면 돌침대를 보는 것은 흔한 일이다. 고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딱딱한 침대가 편하게 느껴졌을까?

고대의 사람들의 삶에 대한 문서 자료들은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음식을 먹고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그때는 그것이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졌다.

중세시대에는 침대는 사교적인 도구로 여겨졌다; 거실에는 사교를 위한 침대가 있었으며 그러한 침대들은 주인의 사회권력이나 인테리어 취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비록 많은 사람들이 침대가 인테리어 관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지만 요즘의 더 많은 강조점은 우리의 건강에 가장 가깝게 연관이 있는 매트리스에 맞추어져 있다. 많은 연구가 더욱 편하면서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매트리스를 개발하기 위해 진행되어왔다.

척추 질병 종류에 따른 관계를 보았을때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매트리스와 관련이 있으며 만성적인 요통이 침대 종류와 더 큰 관련이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숙면이 스트레스와 피로를 푸는데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숙면은 낮시간 동안 느끼는 고통의 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신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자는 동안 올바르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생활 패턴과 요통의 단계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수면 도중에는 등이 특정 부위에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중립적인 자세가 추천된다.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체의 압박은 동일하게 분포되어야만 하며 이는 매트리스의 딱딱한 정도와 관련이 있다. 환자들과 생역학을 포함한 많은 연구들은 이미 압박을 분포시키는 것이 우리의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폭신하거나 물침대가 척추에 좋다고 나타내는 연구들이 있으나 물침대는 측각기관을 위해 피하는 것이 좋다.

Culture / Science

New telecom act draws mixed responses

The new telecom act, which sets a 345,000 won ceiling on subsidies that carriers can use to entice customers, is drawing mixed responses from consumers, mobile carriers and handset makers.

The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went into effect this month.

For the consumer side, the new subsidy mandate is expected to undermine sentiment to purchase new devices as customers will have to pay more to get new gadgets, such as Samsung's Galaxy Note 4, under the new rule.

"Consumers had received fat subsidies in the past. Now we can't expect such big subsidies. I dropped a plan to change my phone to Note 4," said 34-year-old office worker Park Chul-min.

"I found that the suggested retail price for the Note 4 is set at 957,000 won per device. I want to purchase the Note 4. But it's true that paying more than 800,000 won is a huge burden," said 32-year-old software engineer Kim Hyun-chul.

ceiling 최대한도 / subsidy 보조금 / gadget 기기 / mobile carrier 이동통신사업자 / retail 소매의 / burden 짐

새로운 이동통신법이 뒤섞인 반응을 끌어내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쓸 수 있는 보조금을 최대 345000원으로 책정한 새로운 이동통신법이 소비자, 이동통신사업자, 휴대폰 제조업체들로부터 뒤섞인 반응을 끌어내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보조금 정책은 소비자가 삼성의 갤럭시 노트 4와 같은 새로운 기기를 살 때 새로운 법률하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것이므로, 새로운 기기를 사고 싶은 마음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과거에 지나친 보조금을 받았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큰 보조금을 기대할 수 없다. 나는 내 폰을 노트 4로 바꾸는 계획을 포기하였다."라고 34세의 사무실 직원 박철민 씨는 말했다.

"나는 노트 4에 제시된 소매가격이 기기당 957,000원인 것을 찾았다. 나는 노트 4를 사고 싶다. 하지만 800,000원 이상의 지불은 큰 짐인 것이 사실이다,"라고 32세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김현철 씨는 말했다.

Daum Kakao overshadowed by snooping concern

Daum Kakao is struggling to dissipate growing public concern about the state surveillance of its mobile messenger app.

Daum Kakao, the entity formed by the merger of Kakao and Daum Communications, said that it will save users' private chat histories for a shorter period than before.

The company said it will cut the storage period for all conversations through KakaoTalk to two to three days from five to seven.

"With the changing policy, it will be almost impossible to disclose the personal chat histories to authorities, as it usually takes more than two days to get a warrant for them," it said in a statement.

Its co-CEO Lee Sir-goo also said its chat app is safe from state surveillance but made it clear that it will fully cooperate with prosecutors in cases of legitimate requests for monitoring of chat histories in accordance with related laws.

overshadow 그늘이 드리워지다 / snoop 엿따하다 / dissipate 사라지다 / surveillance 감시 / disclose 노출되다 /

prosecutor 검찰관 / legitimate 법적인

다음 카카오가 엽탐의 걱정으로 인해 그들이 드리워지다

다음 카카오는 그들의 모바일 메신저 앱의 정부 감시로 성장하는 대중의 관심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힘겨워하고 있다.

카카오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합병으로 인해 독립체로 만들어진 다음카카오는, 그전보다 더 짧은 기간동안 사용자의 개인적인 채팅기록을 저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기존 5일에서 7일에서 2일에서 3일로 카카오톡을 통한 모든 대화기록을 저장하는 기간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을 바꾸면서, 개인적인 채팅기록을 밝히는 권한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그것은 보통 보증을 얻기 위해 2일 이상이 걸릴 것이다."라고 성명서로 발표했다.

다음 카카오의 공동 CEO 이철구는 또한 이 채팅 앱은 정부감시로 부터 안전하지만, 관련 법에 의해 채팅기록의 감시에 대한 법적 요구가 있는 경우 검찰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Features

All about medical tourism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KTO) has opened a website to provide fast and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nation's medical industry to foreign visitors.

Officials at the organization said the platform, named Visit Medical Korea, will be a plus for medical tourism.

"Medical tourism is a new growth engine with huge potential," KTO CEO Byun Choo-suk said in a launch ceremony at the organization building in Seoul.

"Online marketing is an important tool to provide consumers with correct information rapidly. Visit Medical Korea will be helpful to not only consumers but also the medical and tourism industry."

The website (www.visitmedicalkorea.com) offers comprehensive information about hospitals, medical services, agencies and travel, which had been scattered on websites of regional medical tourism associations and district offices.

accurate 정확한 / potential 잠재적인 / launch 시작하다 / rapidly 빠르게 / comprehensive 포괄적인 / scatter 흩뿌리다 / district 지역의

의료관광의 모든 것

한국관광공사(KTO)는 국가의 의료산업을 외국 관광객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오픈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의료한국방문이라고 명명한 플랫폼을 의료관광을 위해 더할 것이라고 하였다.

"의료관광은 큰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성장 엔진이다." KTO CEO 변추석은 서울의 공사 건물에서 열린 런칭 행사에서 말했다.

"온라인 마케팅은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다. 의료한국방문은 소비자에게 뿐만 아니라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에 있어서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웹사이트(www.visitmedicalkorea.com)는 병원, 의료서비스, 에이전시와 여행에 대한 지방 의료 관광 단체와 지방 사무실의 흩뿌려진 웹사이트로부터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Art museum breathes new life into Jeju

A new art museum stands vivid red in old downtown of Jeju city. This is Arario Museum Tapdong Cinema, a new project of self-made multimillionaire and art collector Kim Chang-il.

Kim is an art collector of some 30 years. His collection includes 3,700 pieces, ranging from the world's most expensive artists to emerging Asian talents. Most of the collection has been kept in a private storage in Okcheon, North Chungcheong Province, but those are now seeing the light of day at Arario Museum in Space in Seoul and three additional museums in Jeju.

The 63-year-old entrepreneur, collector, gallerist and artist purchased abandoned buildings in Jeju and transformed them into art museums, breathing a new life into the old town center.

"I used to think that flowers look beautiful when they are trimmed and put in vase, but when I came to Jeju, I realized that wild flowers under stone walls are lovelier as they are," Kim said at a press preview of the museums.

self-made 자수성가한 / multimillionaire 수백만장자 / collector 수집가 / emerge 나오다 / entrepreneur 경영가 / transform 바뀌다 / trim 자르다, 가지치다

예술관이 제주에 새로운 삶을 숨쉬게 하다

새로운 예술관이 제주시의 오래된 시내에 생기있는 빨간색으로 지어졌다. 이것은 자수성가한 수백만장자와 예술 수집가 김창일씨의 새로운 프로젝트 아라리오 박물관 탐동 시네마이다.

김씨는 30여년 경력의 예술수집가이다. 그의 컬렉션은 3,700 여점에 달하며, 세계의 가장 비싼 아티스트에서부터 떠오르는 아시아 재능가까지 다양하다. 대부분의 수집품들은 충청북도 옥천의 개인 저장고에 보관되어있었지만, 이것들은 이제 서울의 아라리오 박물관과 제주의 세 개의 추가적인 박물관에서 세상의 빛을 보고 있다.

63세의 경영가, 수집가, 갤러리, 예술가는 제주의 폐 빌딩을 샀고, 그것들은 예술관으로 탈바꿈 시키고, 오래된 도시 센터에 새로운 삶을 불어 넣었다.

"나는 꽃이 가꾸어지고 꽃병에 담겨 있을 때 아름답다고 생각하곤 했었지만, 내가 제주에 왔을 때, 돌 담 아래의 야생화도 그것 만큼 예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김은 예술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Business

Consumers turning to 'small luxuries'

The sluggish economy is leaving people with little money, but that doesn't mean they are without the desire for consumption. As a compromise between such desires and reality, consumers are increasingly turning their eyes to "small luxuries," which are expensive in their category but ones that consumers can still afford.

"The desire for consumption doesn't disappear even during a weak economy. If you continue suppressing it due to economic barriers, you can get stressed. If such fatigue reaches certain limits, you will want to satisfy the desire," said Hwang Hye-jeong, a researcher at L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She cited trends in the dessert market as an example. A pack of potato chips, seasoned with Himalayan pink salt, is priced at over 10,000 won; a macaroon from France costs 4,000 won – but shops selling them are enjoying a boom.

"While the department stores are seeing overall sales slowing down, the high-end dessert shops are witnessing a steep sales rise," she says.

The "small luxury" has become a trend, expanding to diverse products and services.

"The absolute price of these goods is low. Even if you choose the most expensive item in the category, the economic burden is still small. Meanwhile, you will be happy that you enjoyed a small luxury," Hwang said.

She also notes the increasing sales of perfume. "You can't buy the haute couture costing tens of millions of won, but there still are a variety of affordable perfumes."

The researcher expected the trend to continue for the time being as it is getting difficult to get satisfaction from large purchases, like buying a house.

Sluggish economy 불경기 / desire 욕구 / consumption 소비 / compromise 타협 / suppress 억누르다 / fatigue 피로 / high-end 최고급 / steep 가파른 / absolute 절대적인 / burden 부담 / haute 고급 / perfume 향수 / satisfaction 만족

소비자들이 '작은 사치품'으로 돌아서다

불경기가 사람들을 가난한 상태에 두고 있지만 소비에 대한 욕구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욕구와 현실의 타협점으로 소비자들은 그들의 눈을 범주 안에서는 비싸지만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작은 사치품"으로 돌리고 있다.

"소비에 대한 욕구는 불경기 동안에도 없어지지 않는다. 경제적 제약으로 억누르는 것을 지속한다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러한 피로가 어떠한 한계에 도달했다면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어질 것이다,"라고 황혜정 LG 경제연구소 연구원이 말했다.

그녀는 디저트 시장에서의 유행을 예로 들었다. 히말라야 핑크 소금으로 양념이 된 감자칩 한 봉지의 가격은 10,000원이 넘고 프랑스에서 온 마카롱은 4,000원이지만 이러한 상품을 파는 상점들은 복세통을 이룬다.

"백화점이 전체적 판매가 낮아지는 것을 보고 있지만 최고급 디저트 가게들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그녀가 말했다.

이러한 "작은 사치품"은 유행이 되고 있으며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넓혀지고 있다.

"이러한 상품들의 절대적인 가격은 낮다. 범주 안에서 가장 비싼 상품을 골라도 경제적인 부담이 여전히 작다. 한편 작은 사치품을 즐기면서 행복할 것이다,"라고 황 연구원이 말했다.

그녀는 또한 향수의 판매가 늘어남을 언급하였다. "천 만원대의 고급 의류를 살 순 없지만 다양한 구매 가능한 가격의 향수들이 여전히 있다."

주택을 구매하는 등 큰 구매를 하면서 만족을 얻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연구원들은 이러한 유행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Carbonated water market surging ahead

The carbonated water market has been booming fueled by more Koreans seeking healthier beverages over soda and other sugary drinks.

According to data released from market research firm Nielsen Korea, consumers purchased flavored carbonated water worth 17.5 billion won from September 2013 through August 2014, up 171 percent from a year earlier.

"The overall food and beverage market has expanded at a slow pace over the past year. In contrast, the carbonated water market has surged at an explosive pace," said Nielsen Korea researcher Cho Dong-hee. "We think carbonated water has appealed to increasingly health-conscious consumers because it does not contain sugar or artificial additives. We expect demand for water will continue to soar in the coming years, prompting more companies to enter the market."

In the beginning, Perrier and other imported brands dominated the market, but local firms have quickly caught up with their rivals by introducing their own brands.

According to Nielsen, carbonated water in Korea is currently sold by 20 local and foreign brands. Of the 20, 18 brands have seen a jump in sales this year from 2013.

Beverage 음료 / overall 전체의 / pace 속도 / explosive 폭발적인 / additive 첨가물 / soar 솟구치다 / import 수입하다 / dominate 지배하다

탄산수 시장이 성장하다

더 많은 한국인들이 탄산음료나 다른 설탕음료 대신 건강한 음료를 찾으면서 탄산수 시장이 탄력을 받아 성장하고 있다.

시장 연구 회사인 닐슨 코리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75억 원 상당의 맛이 첨가된 탄산수를 구매하였으며 이는 지난 해보다 171% 상승한 것이라고 한다.

"전체 음식과 음료 시장은 느린 속도로 지난 한 해 동안 확장되어왔다. 대조적으로 탄산수 시장은 폭발적인 속도로 성장해왔다,"고 닐슨 코리아 조동희 연구원이 말했다. "우리는 탄산수가 설탕이나 인공적인 첨가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는 건강을 염려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물에 대한 요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더 많은 회사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장려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처음에는 페리에와 다른 수입 브랜드가 시장을 장악하였지만 국내 회사들이 그들만의 상표를 소개하면서 빠르게 그들의 라이벌들을 따라잡고 있다.

닐슨에 따르면 한국의 탄산수는 현재 20여개의 국내와 외국 브랜드에 의해 팔리고 있다. 20개 중 18개의 브랜드는 2013년부터 판매의 성장을 보았다.

Society

Man lost at sea in a bubble

A man was found floating in the Atlantic Ocean inside a hydro "bubble," U.S. coastguards report.

The man was initially reported to be "disoriented." A week earlier in Florida, he had been asking for directions to Bermuda. Reza Baluchi had travelled 70 nautical miles east of Florida in his inflatable hydro bubble." said a U.S. 7th Coast Guard District news release.

Drifting off St. Augustine, Florida, with only protein bars, bottled water, a GPS, and a satellite phone, Baluchi had been at sea for three days, before being rescued on Saturday.

"The man was rescued after he activated his personal indicating radio beacon. He was suffering from exhaustion," the statement said.

bubble 거품, 풍선 / initially 초기에 / disoriented 방향을 잃은 / nautical 해상의 / satellite 위성 / rescue 구조하다 / activate 작동시키다 / exhaustion 탈진

바다에서 실종된 풍선 속 남자

미국 해안경비대는 하이드로 풍선 속에서 대서양을 떠다니던 한 남자를 발견했다.

이 남자는 처음에 길을 잃었다고 보고 되었다. 1주 전 플로리다에서 그는 버뮤다로 가는 방향에 대해 물었다. "레자 발루치는 그의 부풀어진 하이드로 풍선 안에서 플로리다 동쪽으로부터 70 해상마일을 여행하였다,"고 미국의 7번 해안 구역 경비 신문은 말했다.

발루치는 단백질 바, 물 한병, GPS, 위성전화를 가지고 플로리다 세인트 아구스틴을 떠났고, 토요일에 구조되기 전까지 3일동안 해상위에 있었다.

"그 남자는 그가 그의 개인용 라디오 비콘을 작동시킨 이후에 구조되었다. 그는 탈진으로 고통받고 있었다,"고 신문은 발표했다.

The teen behind Hong Kong's Umbrella Revolution

A skinny male student with black-rimmed glasses stands with his arms held high, showing the yellow ribbons knotted around his wrist, symbolizing the democracy that Hong Kong protesters are fighting for.

Joshua Wong has become the public face of what is also referred to as the "Umbrella Revolution" – calling for an independent, democratic election.

At just 17, he is the co-founder and convener of Scholarism, the student activist group that sparked the protests for Hong Kong's right to hold an election including civic nominations.

"If a mass movement turns into worshipping a particular person, that's a great problem," Wong said in 2012, during his education protest.

Through his campaign against the education policy, he led up to 120,000 people in a protest that overturned the pro-communist school curriculum.

skinny 깡마른 / rim 테두리 / knot 묶다 / protester 시위자 / democracy 민주주의 / independent 독립 / convener 위원장 / spark 불꽃이 튀다 / nomination 지명 / whorship 숭배하다 / overturn 뒤집다 / pro-communist 친공산주의

홍콩 우산 혁명 뒤의 십대들

까만 안경 태의 깡마른 남학생이 홍콩 시위자가 싸우는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그의 손목에 노란 리본을 묶고 손을 높게 들었다.

조슈아 웡은 독립과 민주주의 선거를 요구하는 "우산 혁명"을 의미하는 공공의 얼굴이 되었다.

고작 17세에 그는 시민지명의 선거를 유지하는 홍콩의 권리에 대한 시위의 시발점이 된 학생활동가 그룹인 스콜러리즘(Scholarism)의 창립자이자 위원장이다.

"만약 시위활동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추종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큰 문제이다." 2012년 그의 시위 교육에서 웡은 말했다.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그의 캠페인을 통해, 그는 친공산주의적 학교 커리큘럼을 뒤집는 시위에서 120,000명의 사람들을 이끌었다.

Story

Hollywood Movies Used to Teach Science

Sometimes Steve Wolf gets blown up or is set on fire. But he claims his job is not really dangerous at all. He works as a stuntman and a special-effects expert for movies and television. He says his breathtaking activities result from science. And he likes to share that science with school children.

“Movie fire takes direction. So it'll do exactly what we need on the movie set.”

He told the schoolchildren that the stunts and special effects result from physics and chemistry -- not magic.

Steve Wolf showed the students how an explosion is created in a movie. He says he loves their reactions.

“(When you see something that looks like a dangerous stunt on a movie) that takes place, you know, in 10 or 15 seconds -- that's, what you're, what you're seeing is three or four weeks of filming. And we film it in little bits and then we edit it together. So, in many cases the stunt that you're seeing never actually happened.”

Steve Wolf says he became involved in science education 20 years ago. At that time, he learned that the United States was not rated among the top 20 nations in science education. That did not seem right to him. He remembered that when he was very young, he watched an American astronaut walk on the moon.

So Mr. Wolf decided to establish a program for students. It is called “Science in the Movies.” Over 20 years, he has performed more than 4,000 demonstrations at schools and science events around the world.

Steve Wolf says when children get deeply involved in learning, they teach themselves.

Caim 주장하다 / expert 전문가 / exactly 정확히 / stunt 고난도 연기 / explosion 폭발 / chemistry 화학 / create 창조하다 / astronaut 우주비행사

과학 교육에 사용되는 할리우드 영화

스티브 울프(Steve Wolf) 씨는 폭발되기도 하고, 불에 불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직업이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는 스텐트맨이며, 영화나 텔레비전의 특수 효과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의 숨 막히는 움직임들은 과학의 결과라고 그는 이야기한다. 또 학교 학생들과 그런 과학에 대해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영화에서 불이 나는 장면은 짜여진 각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촬영장에서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장면을 정확히 연출해줄 것입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스텐트와 특수 효과는 마술이 아닌 물리학과 화학의 결과라고 말했다.

스티브 울프 씨는 학생들에게 영화에서 폭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주었다. 그는 그들의 반응이 너무 좋다고 말한다.

“영화에서 10 초에서 15 초 길이의 위험해 보이는 고난이도 장면을 보게 되면 그건 3-4 주 정도의 촬영분량에 해당하는 거랍니다. 또 우리는 조금씩 촬영한 뒤에 그걸 편집해서 하나로 만들죠. 대개 당신이 보고 있는 스텐트 장면은 실제로 영화 속에서 보이는 장면 그대로 촬영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스티브 울프 씨는 20 년 전에 과학 교육에 종사했었다고 이야기한다. 그 당시, 그는 미국이 과학 교육 분야에서 20 위권에 들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에게는 납득하기 힘든 내용이었다. 자신이 어렸을 적 보았던 미국인 우주 비행사가 달을 걷는 장면을 보았던 것을 회상했다.

그래서 울프 씨는 학생들을 위해 “영화 속 과학(Science in the Movies)”이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20 년간, 그는 전 세계의 학교와 과학 행사에서 4 천여 회가 넘는 설명회를 진행했다.

아이들은 학습에 깊이 빠지면 그들 스스로 배운다고 스티브 울프 씨는 말한다.

Natural Disasters Are a Barrier to Ending Extreme Poverty

From American politics, we turn our attention to fighting poverty around the world. A new report says natural disasters will stand in the way of ending extreme poverty unless more is done to prepare for such events. Jim Tedder has more on the story.

Britain's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or ODI, prepared the new report. It says that droughts, floods and other natural disasters are barriers to ending extreme poverty. The ODI report defined extreme poverty as living on less than one dollar and 25 cents a day.

The report warns that governments must deal with the increased risk of disasters in some of the world's poorest areas. That means that taking steps to reduce the risk should be part of any poverty prevention program. The report predicts that, by 2030, up to 325 million extremely poor people will live in the 49 countries threatened most by natural disaster. Most of those countries are in South Asia or in Africa, south of the Sahara Desert.

Tom Mitchell is with the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He says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natural disasters - or what he calls natural hazards.

The report says 11 countries are most at risk for poverty resulting from disasters. Eight of the 11 are in Africa. They include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Sudan, South Sudan and Uganda. The Asian nations are Bangladesh, Nepal and Pakistan. The report identified India as a country that would have large numbers of poor people at risk.

"In 2030, we expect there to still be very significant numbers of poor people living in India - possibly above a hundred million. In addition, this is a country that's going to be extremely exposed natural hazards. It's got very good central capacity to manage the problem. But at state level - some of which are as big as countries by themselves - the capacity is much more variable."

"Look, if you're serious in ending extreme poverty - and that you're serious in protecting your economic growth - then disaster risk management needs to be at the heart of your policies - needs to be at the heart of your economic growth policies - and needs to be a part of your social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policies."

Poverty 가난, 빈곤 / disaster 재난 / extreme 극도의 / reduce 줄이다 / hazard 위험 / resulting 결과로 초래된 / identified 확인된 / significant 중요한 / capacity 용량 / variable 변동이 심한 / serious 심각한 / protecting 보호하는

자연 재해, 극빈 종식의 장애물

미국 정치에서 전 세계 빈곤 퇴치 문제로 관심을 돌려보자.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연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더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는 극빈 퇴치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 한다. 짐 테더(Jim Tedder) 기자가 이 소식을 전한다.

영국 해외개발연구원(ODI)이 최근 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뭄과 홍수, 여타 자연 재해가 극빈 퇴치에 장애가 된다고 한다. ODI 의 보고서는 극빈층을 하루에 1 달러 25 센트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정의했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들의 나서서 일부 극빈 지역에서 증가하는 자연 재해 위험을 해결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는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조치가 모든 재해 예방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2030 년경 3 억 2,500 만 명에 달하는 극빈층 사람들이 자연 재해 위협을 가장 많이 받는 49 개 국가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국가들의 대부분은 남아시아나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다.

톰 미첼 씨는 해외개발연구소 소속이다. 그에 의하면 빈곤과 그가 내추럴 해저드(natural hazards)라 부르는 자연 재해(natural disasters)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연 재해로 인한 빈곤 위험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11 군데이다. 그 중 8 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여기에는 콩고민주공화국과 수단, 남수단과 우간다가 포함된다. 아시아 국가들로는 방글라데시와 네팔, 파키스탄이 있다. 보고서는 위험에 노출된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인도를 꼽았다.

“우리는 2030 년에도 인도에는 여전히 많은 수의 빈곤 인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수가 1 억 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도는 앞으로도 자연 재해에 더욱 심하게 노출될 것입니다. 인도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그 자체만으로도 규모가 다른 국가들만큼이나 큰 주정부 차원에서는 재해 관리 능력이 저마다 다릅니다.”

“극빈 종식에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또한 경제 성장을 정말로 유지하고 싶다면 재해 위험 관리가 정책의 중심에, 경제 성장 정책의 중심에 서도록 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해 위험 관리가 사회 발전 및 빈곤 감소 정책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